

문의 구조와 연접 이론에 의한 문단 분석 연구

김 광 응 *

<目 次>

1. 서론
2. 문의 구조와 연접 이론
 - 2.1. 문의 기본 유형
 - 2.2. 문의 구조상 분류 및 분석
 - 2.3. 문의 분석에 고려할 점
 - 2.3.1. 주어와 서술어의 대응
 - 2.3.2.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대응
 - 2.3.3. 연결 어미의 대응과 의미
 - 2.3.4. 내포화와 어미
 - 2.4. 문, 문단의 연접 구조
 - 2.4.1. 기본적인 연접 구조
 - 2.4.2. 접속부사와 연결어의 연접 유형
3. 결론

1. 서론

문장(speech)은 문단의 통일성에 의해서 짜여진 구조다. 어떤 문장이든 주요 단락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구조형을 이룬다. 또한 문장의 구조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단위인 문단은 문을 구조 단위로 하여 문단의 완결성과 긴밀성에 의해 이루어진 구성체가 된다.

그러므로 문단의 구성 요소인 文의 기본형을 문장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국어의 내포문과 접속문을 분석하는 데 어떤 이론이 적합할 것인가? 문의 연접 구조와 문단의 연접 구조를 어떤 이론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등의 이론 설정과 그 실제 적용은 문단 분석, 나아가 문장 분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문장론은 文(sentence)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문단(paragraph)과 문장(speech)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單位文이 통합해서 통일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 다시 말해 文보다 고차적인 통일체로서의 문단과 문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어학적 연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벗어나 文보다 더 고차적인 통일체로서의 문단, 문장 연구의 하나로 근래 문장론 연구에서 발전된 유형을 바탕으로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문에 대한 통사론의 이론과 연접 구조를 살피고 문단과 문장 분석의 실제에 적용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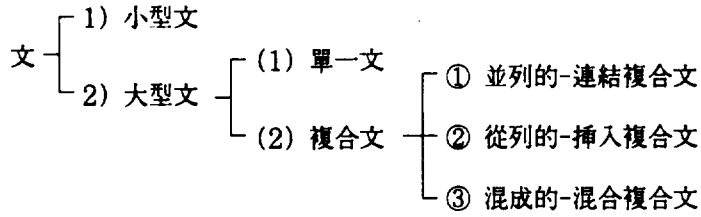
2. 문의 구조와 연접 이론

2.1. 문의 기본 유형

전통문법에서 영어의 기본 형식은 5형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국어의 기본 문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기본 형식이 규정되면 문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그 문은 결국 기본 문형에 귀착될 것이다. 문의 복잡성은 수식어의 나열, 연결어미의 연속적 배열에 의함이지 문 기본형 자체의 복잡성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문의 기본문형 설정은 문의 분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국어의 기본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여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된 국어의 기본 문형 이론은 문장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문법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밝히고 있지만 대표적인 몇 이론은 다음과 같다.

김민수, 「국어문법론」(一潮閣, 1971)¹⁾



단일문의 기본 문형을 다섯으로 나누었으니,

- 제1형식 : SV...꽃이 핀다. 꽃이 붉다.
- 제2형식 : SCV...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 제3형식 : SOV...학생이 책을 읽는다.
- 제4형식 : SOOV...그는 책을 내게 준다.
- 제5형식 : SOCV...우리는 그를 대표로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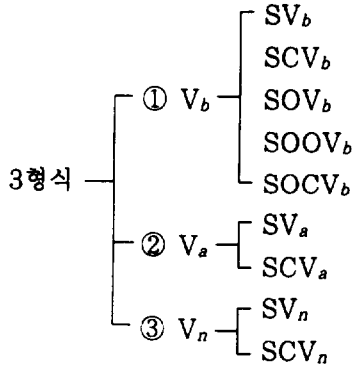
또 술부형식 술어(V)의 성질은 분석하여 3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① 무엇이 어찌한다(동사문) : ~ 핀다, ~ 으로 변한다, ~ 읽는다.
- ② 무엇이 어떠하다(형용사문) : ~ 붉다, ~ 같다.
- ③ 무엇이 무엇이다(술격문) : ~ 식물이다, ~ 열성이다.

위의 동사문은 동작·행동을 표현하고, 형용사문은 성질·상태 등을, 술격문은 개념어를 표현한 것이다.

이 3형식을 5형식에 가미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온다.

1) 김민수, 「국어문법론」(一潮閣, 1971), p.169, pp.173~177.



여기서 서술어가 동사일 때 5형식이 되며,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2형식, 서술어가 체언일 때 2형식으로 나뉜다.

국어의 기본 문형을 단일문 대상으로 하여 술부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6형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 ① NP + V_bP(+Aux)…무엇이 어찌한다(動詞文)
- ② NP + {V_aP, V_nP} (+Aux)…무엇이 어떠하다(形容詞文)
- ③ NP + NP(+Aux)…무엇이 무엇이다(述格文)
- ④ NP + NP + {V_bP, V_aP, V_nP} (+Aux)…(補語文)
- ⑤ NP + NP + V_bP(+Aux)…(客語文)
- ⑥ NP + NP + NP + V_bP(+Aux)…(客補文)

이익섭·남기심, 「국어문법론」(방통대 출판부, 1993)²⁾

제1형 : 주어 + 서술어¹

(해가 떴다. 달빛이 밝다.)

제2형 : 주어 + 서술어²

(여기가 판문점이다. 형은 군인입니다.)

제3형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너도 賞을 탔니?)

2) 이익섭·남기심, 「국어문법론(Ⅰ)」(방통대 출판부, 1993), p.158

- 제4형 : 주어 + 보어 + 서술어
(이것은 나팔꽃이 아닙니다. 영수가 중학생이 되었다.)
- 제5형 : 주어¹ + 주어² + 서술어
(형은 눈이 크다. 토끼는 피가 많다.)

최현배, 「고등말본」(정음사, 1956)

- ① 임자말 + 풀이말
별이 반짝인다. (무엇이 어찌한다)
달이 밝다. (무엇이 어떠하다)
- ② 임자말 + 기움말 + 풀이말
노루는 산짐승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 ③ 임자말 + 부림말 + 풀이말
학생이 글을 읽는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정인승, 「고등학교 표준문법」(계몽사, 1968)

- ① 주어 + 서술어
봄이 왔다. (무엇이 어떡한다)
날씨가 따뜻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봄은 계절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 ②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꽃이 나비를 부른다. (무엇이 무엇을 어떡한다)
- ③ 주어 + 보어 + 서술어
구름이 비가 된다. (무엇이 무엇이 된다)
사람이 신이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구름이 솜과 같다. (무엇이 무엇과 같다)
- ④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내가 그이를 친구로 삼았다.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여기다)
국민들이 그분을 국부라고 부른다.
(무엇이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른다/일컫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은 문장 분석에 좋은 하나의 이론을 제공할 것이다. 기본 문형이란 최소한의 필수 성분을 갖춘 단문의 구조로 볼 때, 기본 문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성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문장이나 주어와 서술어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서술어가 되는 용언이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는 필수적인 성분이 되어 그 정의가 비교적 분명하고 그 필수성도 확실하다. 그러나 보어라는 성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가장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 (1) a. 구름이 비가 된다.
b.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 (2) a. 그는 철수를 친구로 삼았다.
b. 장미는 진달래와 다르다.
- (3) a. 그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었다.
b. 회원들은 모두 학회에 참석하십시오.

(1)의 경우만을 보어로 인정하는 분이 있고, (2)의 경우까지를, 심지어는 (3)의 경우조차 다 포함시키는 분이 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어나 목적어 이외의 <체언+조사>로써 필수적 성분을 모두 보어로 규정한다면 (2)와 (3)의 밑줄은 모두 보어로 보아 기본 문형 설정 때 이런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다른 문장에서는 수의적 요소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나는 친구와 학교에 갔다.
- (5) 나는 그 회의에 회원으로 참가하였다.
- (4)' 나는 학교에 갔다.
- (5)' 나는 그 회의에 참가하였다.

(4), (5)의 <와/과>, <(으)로>는 필수적으로 등장한 성분이 아니다. 즉 수의적인 성분인 것이다. 이 성분이 없어도 (4)와 (5)는 (4)', (5)'와 같이 완전한 문장으로 성립된다. 이런 성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필수적 성분이 되기도 하며 또 수의적 성분이 되어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2)와 (3)은 보어에서 제외된다. (1)만을 보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의 필수적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보고,

보어는 (1)의 a, b로 한정하여 네 성분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필수적 성분의 문형인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국어의 기본 문형으로 설정하면 문장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 1 형식 : 주어 + 서술어

제 2 형식 : 주어 + 보어 + 서술어

제 3 형식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다만 주어진 문장의 필수적 성분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해지므로 수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2), (3)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서술어에 여러 가지 특수한 문형이 나타날 수 있는 용언의 어휘적 특질에 의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용언이 서술어가 되느냐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 다양해지며 그 위치도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다.

2.2. 문의 구조상 분류 및 분석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문의 구조상 분류를 3분법 혹은 4분법으로 구분한다.

- | | | |
|---|---|---------------------------------------|
| 문 | { | ① 단일문(simple sentence)(단문) |
| | | ② 병립문(compound sentence)(중문) |
| | | ③ 주종문(complex sentence)(복문) |
| | | ④ 중복문(compound-complex sentence)(혼성문) |

단일문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문이 같은 자격으로 병립된 것을 병립문, 앞에 쓰여서 의의상 독립할 수 없어, 그 뒤의 절을 수식하는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것과 삽입절인 성분절이 있는 삽입 복합문(포유 복문)을 주종문이라 하고, 중문과 복문이 결합된 것을 중복문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을 분석할 때에 각문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연결어 등은 중

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국어문법론³⁾에서는 병립문(重文)은 중복과 선택과 대립과의 세 연결 관계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중복 지표, 선택 지표, 대립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중복 지표로써

- ① 중복형 : ~고, ~며, ~거(려)니와, ~면서, ~는 바, ~자, ~고서, ~다(가)
- ② 연결어 : ~ㄴ 동시에, ~ㄴ 한편, ~ㄴ 일방, ~ 즉시로, ~ㄴ 뿐(만) 아니라, ~ㄴ 뿐더러, ~가 무섭게, ~자마자

선택 지표로써

- ① 선택형 : ~거나, ~든지, ~든가, ~든

대립 지표로써

- ① 대립형 : ~나, ~지(다)만, ~는데, ~거늘, ~되, ~ㄴ에도, ~다마는, ~기는커녕
- ② 연결어 : ~ㄴ데, ~ 무릅쓰고, ~ㄴ데 불구하고, ~ㄴ에도 불문하고, ~기는 고사하고
- ③ 양태어 : 하물며, 더구나, 도리어, 오히려

주종문은 가정, 원인, 전제의 세 연결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 하여 가정 지표, 원인 지표, 전제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 지표로써

- ① 가정형 : ~(다)면, ~거든, ~(더)라도, ~ㄴ지라도, ~ㄴ들, ~어도, ~ㄴ진대, ~나마
- ② 연결어 : ~다(고) 하면, ~다(고) 보면
- ③ 양태어 : 만일, 설사, 가령, 설혹, 혹시, 비록, 아마, 정녕

3) 김민수, 앞의 책, p.249

원인 지표로써

- ① 원인형 : ~니까, ~(더)니, ~어(서), ~라, ~므로, ~ㄴ지라, ~길래, ~기에, ~때, ~르새, ~건대, ~거늘, ~나니
- ② 연결어 : ~기 때문에, ~ㄴ 까닭에

전제 지표로써

- ① 전제형 : ~어야, ~건만, ~게, ~ㄴ즉, ~르망정, ~르지언정, ~르수록
- ② 연결어 : ~다(고)해야, ~다(고)보아
- ③ 양태어 : 아무리, 결코, 도저히

그런데 주어진 접속문이 대등 접속문(병립문)이나 종속 접속문(주종문)이나를 가름하는 것은 선·후행의 의미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때가 있다.

- (6) a. 새는 노래하고, 나비는 춤을 춘다.
- b. 선생님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씨를 쓴다.

(6)의 a에서는 '-고'가 대등 접속문을 이루고 있으나, b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행위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속 접속문을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종속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통사적 특징에 다른 점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⁴⁾

첫째로, 대등 접속어미에 의해 이끌리는(대등 접속어미가 붙은) 문장은 그와 접속된, 뒤에 오는 문장 속으로 자리 옮김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속 접속어미에 의해서 이끌리는 문장(끝, 종속절)은 뒤에 접속된 문장(끝, 주절) 속으로 자리 옮김이 가능하다.

둘째로 대등 접속문에서는 동일 명사(구)가 순행 생략된다. 선행절 안의 명사와 동일한 명사가 뒤의 후행절에 나타나면 후행절의 명사가 생

4) 이익섭, 남기심; 앞의 책. p.175

략된다. 그런데 종속 접속문의 경우는 역행 생략이 될 수 있다. 종속절의 명사가 주절의 명사와 동일할 때 종속절의 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셋째로, 대등 접속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재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종속 접속문에서는 재귀화가 일어난다.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은 종속절 접속어미에 의해 접속된 종속 접속절(종소절-종속절 접속어미가 붙은 문장)이 대등적 접속어미에 의해 접속된 대등 접속절(대등절-대등절 접속어미가 붙은 문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①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이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②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이 글은 두 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① 문은 상당히 길다. ① 문을 보면 <반만 년 ~함이니>는 종속절이요 <시 | ~발동이라>는 주절이다. 그래서 이 글의 전체 주어는 <시 |>로써 서술어는 <명명이며, 대세 |며, 발동이라>로 구성되어 이 글의 주지(주지)는 “독립 선언은 정당한 것이다”로 요약될 수 있다. 종속절을 분석하면 <~위하야, ~며>가 4개이며 <~위하야, ~니>와 합쳐 전부 다섯 개의 대등문으로 구성되어 <~며>는 중복지표로써 대등적 연결이며 <~니>는 원인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① 우리 국조(國祖) 형극(荊棘)을 개제(開除)하시고, 정교(政敎)를 베푸신 뒤로 면연(綿延)함이 거의 오천 년에 미치는 그 동안, 흥폐(興廢)의 고(故)가 어찌 한두 번이리요마는, 실상은 한 족류(族類)로서의 대승(代承)이요, 혹 외구(外寇)의 침탈(侵奪)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地域)이 일구(一區)에 그쳐, 환해 고운(桓解古胤)의 내려오는 통서(統緒)는 언제나 엄연(儼然)하였었나니, 우리 몸소 당한 바 변난(變難)이야말로 사상(史上)에서 보지 못하던 초유(初有)의 참(慘)이라. ② 광무(光武) 을사(乙巳)로

비롯하여 정미(丁未)를 지나 융희(隆熙) 경술(庚戌)에 와서 드디어 언어(言語) 끊이니 그 참(慘)됨은 오히려 둘째라. ③기치(奇恥)와 대륙(大辱)이 이에 극(極)함을 무엇으로 견준다 하리요.

세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① 문을 분석하면 <우리 ~엄연하였나니>는 종속절이요, <우리 ~참이라>는 주절이다. 주절의 주어는 <변난이야말로> 서술어는 <참이라>이다. 이 글의 중심문은 ① 문이므로 이 글의 주지(주지)는 “경술 변난(경술 국치)은 사상 초유의 참이다.” 로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 문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설정될 기본 문형을 익숙하게 알아 문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을 분석할 때 문형의 설정 기준과 같은 각도에서 분석해야 하며 복잡한 혼성문이나 복문은 단일문으로 쪼개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로 분석하며 분석 대상에서 문형에 없는 수의적 요소는 무시하되, 문형에 있는 필수 요소는 찾아 놓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2.3. 문의 분석에 고려할 점

문단을 구성한 문은 主從文이 그 주류를 이룬다. 물론, 저급 학년에서는 단일문을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하고 점차로 주종문, 混成文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문의 길이가 길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살펴보자.

2.3.1. 주어-서술어의 대응

- ① 주어와 서술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며 읽어가는 도중에 무엇이 주어인지를 망각하게 된다. 이 때에는 문을 몇 개로 잘라 양자의 위치를 접근시켜서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 ② 문장 도중에 주어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체 주어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면서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

- ③ 하나의 주어가 둘 이상의 서술어를 가지고 있을 때엔 구두점에 유의하여 필자가 쓰려고 하던 의도(main subject)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④ 주된 주어(main subject)와 부주어가 있을 때 주된 주어와 주된 술어를 대응시켜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
- ⑤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많은 삽입구절이 나열될 때에는 삽입된 구절을 분리시켜 주술 관계를 올바르게 연결시켜야 한다.
- ⑥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 문 하나만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 전체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 분석이 난해한 예를 몇 개 통해 주어-술어의 관계를 살펴보자.

- ① 고향에 돌아온 지 어언 여러 해가 된다.
- ② 흔히 향간에서는 낙향이라고들 말하지만, 낙향이 아니라, 귀향이요, 귀거래 전의 심정에서 옛 보금자리를 찾아왔던 것이다.
- ③ 새 소리에 날이 밝아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송뢰(松籟)에 해가 저무는 속에 나는 오늘도 담담히 잔을 기울이다가 그만 하루 해를 보내고 있다.
- ④ 매화도 늙고 보면 성근 가지에 한두 송이 꽃을 꾸며 족하듯이, 이제 나는 허울을 다 떨어 버린 한 그루 고매(古梅)로 그저 무념무상이면 넉넉하다.
- ⑤ 회고하면 모두 아득한 옛날, 내 주변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던 친구들의 소식은 이제 저 산 너머 오고가는 한 점 구름처럼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지나가는 그림자요, 산골을 흘러 내리는 물 위에 떠가는 꽃이파리들이다.

위 글에서 ③의 구조를 살펴보자. <새소리에 ~속에>는 종속절이며 종속절에 들어 있는 <날이> <해가>가 전체 주어가 아니라 성분절의 주어이며 전체 주어는 <나는>으로 이 문의 구조는 <나는 해를 본고 있다>의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문형이다.

또, ⑤의 주술 관계를 보자. <회고하면 ~옛날>은 독립구이며 <내 주

변은 ~소식은) 주부로서 <소식은>이 전체 주어이며, <이젠 ~꽃이파리들이다>는 서술부로서 서술부는 다시 <이젠 ~그림자요>와 <산골은 ~꽃이파리들이다>는 대등한 서술구로서 ⑤문의 서술어는 <그림자요>와 <꽃이파리들이다>가 된다. ⑤문의 구조는 <소식은 그림자요, 꽃이파리들이다>고서 <주어+서술어>의 기본문형으로 서술어가 한 주어에 두 개가 나열되고 있다.

悠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민국은 3·1운동의 승고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 義擧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 글은 한 文으로 구성되어 주어부, 목적어부, 부사어부, 서술어부로 구성된 글이다. <유구한 ~대한민국은>은 주어부이고, <3·1운동의 ~다짐하여>는 부사어부, <1948년 ~헌법을>은 목적어부, <이제 ~개정한다>가 서술어부로서 주어는 <대한민국>, 목적어는 <헌법을>, 서술어는 <개정한다>로서 요지를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개헌 정신을 천명한 글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문형을 가지고 있다.

[1] 인생 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있거니와 인생은 과연 짧은 것이다. 짧은 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인생이다. 짧은 이 인생을 어찌하면 좀더 의의(意義)있고 가치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별수 있나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하는 것이 일종의 농담으로 되는 것은 용혹무괴(容或無怪)나 진정한 뜻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줄 안다. 취생몽사(醉生夢死)의 생활, 이에서 더 공허하고 적막하게 한 되는 생활이 어디 있으랴.

[2] 시간적으로 보아서나 공간적으로 보아서 사람은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영능(靈能)이 있어서 고결한 이상을 동경하고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애쓰고 나가는 절대무한의 생

명 그 물건이다.

[3] 사람은 언제 죽을 지 모른다. 있다가 내일 죽을 것같이 준비치 않으면 안될 것이요, 양천부지(仰天俯地)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른 생활을 하도록 늘 경계하고 지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이러한 긴장미가 있는 생활이야말로 진실된 생활이라 할 것이다.

[1][2][3]문단의 전체 주어를 살펴보자. [1]문단의 주어는 전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단 전체의 내용으로 유추할 때 <인생>임을 알 수 있다. [2]문단의 주어는 지시어로 <그것이>로 나타나 있어 문맥 상호간의 연관을 살펴보면 <사람>이 될 것이다. [3]문단에서 필자의 의도는 제일 끝 문에 있다. 그래서 전체 주어는 <생활이야말로>가 될 것이다.

봄은 생명 있는 만물에 다사로운 입김을 불러 넣어주며, 삶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주고, 보다 무성한 생활의 영위를 촉구하는 철이다.

이 글의 기본 문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의 주부는 <봄은>이고 서술부는 <생명 있는~철이다>까지이다. 서술부를 분석하면 세 개의 관형절과 서술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세 개의 관형절 <생명 있는~넣어주며>, <삶의~하여주고>, <보다~촉구하는>은 대등 접속문을 이루었으며, 그 접속어미는 대등 접속어미(대등적 지표) <-며, -고>가 쓰이고 있다. 나아가 이 세 개의 대등적 접속문은 <철>이라는 명사를 꾸며 관형절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기본 문형은 <봄은 철이다>>로 <주어+서술어>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인류가 네오 내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이 文의 주어와 서술어는 어떤 것이며 어떤 기본 유형의 글인가? 이 文의 주어는 <세계~것은>이고 서술부는 <좋은~이상이다>이다. 주어부를 분석하면 <세계~사는>은 <것>을 꾸며 <-것> 명사화를 이루어 주어부가 되고 있으며, 서술부는 세 개의 대등 접속절을 이루어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이상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부의 연

접은 대표적 대등적 접속어미 <-요>가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하나의 주어 <것>에 세 개의 서술어 <일어요>, <희망어요>, <이상이다>로 연결된 文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주어+서술어>의 기본 문형을 가진 글이 된다.

2.3.2. 수식어(구절)와 피수식어(구절)의 대응5)

수식어(구절)는 관형어(구절), 부사어(구절)를 말한다. 특히 수식어가 중첩된 경우 그 수식어가 의미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말을 수식하는데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유의해야 한다. <단 두 푼도 없을 적이 많다 오.>에서 <단>은 <두>를 꾸미고 있으며 <바로 저 사람이 날 때리던 사람입니다.>에서 <바로>는 <때리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수식하고 있다. <높은 하늘과 지구 사이의 모든 동물>에서 <높은>은 <하늘>만 수식하고 있다.

수식어를 분석하는 데 몇 가지 유의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사어의 위치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봄으로써 이에 따른 의미 변화를 파악시킴으로써 어떻게 의미가 변화하는가를 유추해 볼 것이다.
- ② 본래 부사는 바로 다음의 말을 수식하는 일이 많지만, 전성부사는 하나 건너 뛰어 다음의 용언을 수식하는 일이 많다.
- ③ 제1유형(순수부사가 수식하는 경우)

부사어 + 부사어 + 용언 (꼭 빨리 뛰어라.)

네가 노래를 훨씬 더 잘 부르더라.

- ④ 제2유형(전성부사, 또는 용언의 부사형이 수식하는 경우)

5) 최현배, 『우리말본』(정음사) pp.747~759, pp.571~578 참조

부사어 + 부사어 + 용언 (빨리 꼭 뛰어라.)

- ㉔ 제3유형(부사성 연결어미를 가진 용언, 부사성 불완전 명사, 부사격 조사가 수식하는 경우)

부사어 + 부사어 + 용언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었다.

책 구실을 할 만큼 많이 컸다.

- ㉕ 관형어와 부사어가 겹쳐 있는 경우 앞에 있는 부사어는 다음의 관형사형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연대는 가장 험악한 시대이다.

- ㉖ 관형어가 겹쳐서 쓰일 경우에 어느 것을 꾸미는지 모호해질 때가 있다. 이를 분명히 하려면 쉼표를 사용한다.

활룡한 우리 나라의 지도자

활룡한, 우리 나라의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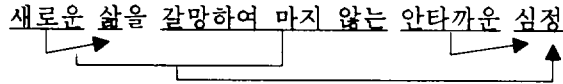
- ㉗ 관형어와 부사어는 한 자리에 여러 개가 접칠 수도 있다.

이 달콤한 아침의 공기를 마시세요.

우리들의 그 벽찬 감격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특히 문을 분석할 때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의미 관계를 본위

로 하여 여러 유형을 추출하여 문장의 효과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갈망하여 마지 않는>은 <안타까운>을 수식한 것이 아니라 <심정>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말과 행동으로 만 사람의 거룩하고 추악한 심정을 짐작할 수 있고, 전설과 유물로 옛날에도 오늘과 같이 사람 사이에는 동정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①가장 다정한 가장 진실한 이야기는 책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

①을 분석하면 두 개의 부사어 <가장>은 각각 용언 <다정한>과 <진실한>을 수식하여 <가장 다정한> <가장 진실한>은 대등한 관형구로서 <이야기>를 수식하여 이 글의 본체는 <이야기는 책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로서 독서의 효용을 논하고 있는 글이다.

2.3.3. 연결 어미의 대응과 의미

연결어미의 구실과 대응은 文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긴 문이 연속될 때 연결 어미의 대응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미의 용법과 대응 구조를 분명히 할 때 그 문맥은 명료해지고 文意는 명백해질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법에 의해 문법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 어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대 등 법	나열 선택 반복	고, 면서, 며, (아)어, 요 든지, 거나, (으)나, (으, 느, 더)ㄴ지 락, 거니
종	구속	(으)면, (으)르것 같으면, (으)르진대, 거든, (더)ㄴ들, (으) 니, (으)ㄴ죽, 아(어)서, (으)매, (으)므로, 아(어)야만, 거 늘, 기에(로), 아(어)야, (으)니까, 나니, (으)ㄴ지라, 거니, 건대, 관대
	방임	더라도, (으)르지라도, (으)ㄴ들, (으)르망정, (으)르지언정, 지마는, 아(어)도, (으)나, (으)마나, (으)련마는, 건마는, 거니와, (으)려니와, (으)나마/
속	설명 비교	는데, (으,느,더)ㄴ바, (으)되, (으)르새, (으,더,노,나)니 거든/거온, 거들랑
	연발	자/자마자
법	중단	다가, 다
	첨가	(으)로, (으)르뿐더러
	익심	(으)르수록
	의도	(으)려, 고자 (저)자
	목적	(으)러
	도급	도록

또 연결 어미의 의미 범주 규명은 문장 분석과 의미 이해에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⁶⁾

대등적 연결 어미는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범주로 크게 나뉘는데,
화자가 후행절의 사태에 대하여 나열될 수 있는 사태를 선행절에서 제
시할 때는 <-고, -(으)며>가 선택되어 연결된다. 나열 접속 구성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공통 화제로 묶일 수만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 선행절과
후행절로 연결될 수 있다.

화자가 후행절의 사태에 대하여 대조적 사태를 선행절에 제시할 때는
<-(으)나, -지만, -어도, -는데> 등의 연결 어미가 선택되어 연결된다.
또 화자가 후행절의 사태에 대하여 선택적인 사태를 선행절에서 제시할
때는 <-거나, -든지, -든가> 등이 선택되어 연결된다.

종속적 연결 어미의 의미 범주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배경, 원

6) 임흥빈, 안명철 외 : 「바른 국어 생활과 문법」(방통대 출판부, 2001) p.227

인, 조건, 결과, 양보, 선행 등으로 분류된다.

화자가 후행절의 사태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이나 공간적인 배경을 선행절에서 제시할 때는 <-는데, -(으)니> 등이 선택되어 연결된다. 또 화자가 원인이 되는 사태를 선행절에서 제시할 때는 <-어서, -(으)니까, -(으)므로, -기에, -느라고> 등이 선택되어 연결된다.

화자가 후행절의 사태에 대해 조건이 되는 사태를 선행절에서 제시할 때는 <-(으)면, -거든, -어야> 등이 선택되어 연결된다. 그리고 화자가 양보하는 내용의 사태를 선행절에서 제시할 때는 <-어도, -더라도, -(으)ㄴ들> 등이 선택되어 연결된다. 또 화자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태를 선행절에서 제시할 때는 <-고서, -어서, -자, -자마자, -다가> 등이 선택되어 연결된다. 이 밖에 목적, 의도, 동사 등의 의미 범주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어떤 종류의 연결 어미가 많이 쓰이고 있는지 살펴 보자.

연결어미 빈도수

대 등 법	나열 선택 반복	고:267, (으)면서:21, (으)며:36, (아)어:58, 요:8 든지:6, 거나:9(으, 느, 더)ㄴ지:7 락:x, 거니:1
	종 속 법	구속 (으)면:88, (으)르것 같으면:x, (으)르진대:1, 거든:x, (더)ㄴ 들:x, (으)니:4, (으)ㄴ죽:x, 아(어):120, 아(어)서:74, (으)매:x, (으)므로:6, 거늘:x, 기에:x, 아(어)야:19, (으)니까:2(이)라:23, 관대:1, 듯이:4, 르시:1 방임 더라도:5, (으)르지라도:4, (으)ㄴ들:3, (으)르망정:2, (으)르지 언정:x, 지마는:15, 아(어)도:12, (으)나:5, (으)나마:x, (으)런 마는:2(느)ㄴ대도:1, 건마는:4, 다마는:4, 면서도:4, 고서도:3, 이라도:2, (으)라마는:2, 리요마는:1, (으)려니와:2, 거니와:2 설명 비교 는데:28, (으, 느, 더)ㄴ바:x, (으)되:3, (으, 도, 노)니:32 거든:1

종 속 법	연발	자:5
	중단	다가:14, 다:1
	첨가	(으)르뿐더러:x
	익심	(으)르수록:3
	의도	(으)려:6, 고자(저):2
	목적	(으)러:5
도급	도록:15	

이를 토대로 하여 문장을 중심으로 빈도수가 높은 연결 어미의 용법과 기능을 숙달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나열, 구속, 방임, 설명형 연결 어미 등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연결 어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위에서 빈도수가 높은 연결 어미의 용법은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용법을 세분화시켜 문장 분석에 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4. 내포화와 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지는 접속 문과는 달리 문장이 절의 형태로 다른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내포화라 부르고 있다.

내포화란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를 붙여 명사형이나 관형어 또는 부사어를 만들어 한 문장에서 명사, 관형사, 부사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명사화, 관형화, 부사화로 하위 분류된다.

명사화란 주어진 문장이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거쳐 다른 문장 속에서 명사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어진 문장의 종결어미에 <-기>를 붙여 명사화하는 <-기>에 의한 명사화와 <-(으)ㄴ>을 붙여 명사화하는 <-(으)ㄴ> 명사화, 또 주어진 명사의 종결어미 자리에 관형사형 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것>을 취하는 <-것> 명사화가 있다.

<-것> 명사화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순수한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우와 불완전 명사로 대명사적 기능을 가지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 (7) a. 나는 그가 외국어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 b. 영수가 연필을 샀는데, 영수가 산 것은 색이 노랗다.

(a)의 <-것>은 그가 “외국어를 잘하는”의 어느 한 성분이 아니며 문장 안팎의 어느 사물도 지시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므로 명사화된 명사절이다. 그러나 (b)의 <-것>은 문장에 명시되어 있는 연필을 의미하는 대명사적 기능의 <-것>이므로 (b)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화된 명사절이 아니고 대명사 <-것>을 꾸며주는 관형화이다.

관형화란 주어진 문장이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거쳐 다른 문장 속에서 체언을 꾸미는 관형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말한다. 관형화하는 어미에는 <-는>, <-(으)ㄴ>, <-던>, <-(을)ㄹ>의 네 가지가 있다.

관형화 어미는 서술어가 동사일 때와 형용사일 때 그 쓰임에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⁷⁾

		동사	형용사
기 정	비과거	-는	-(으)ㄴ
	과거	-(으)ㄴ	
	과거 중단	-던	-던
미 정		-(으)ㄹ	

부사화란 주어진 문장이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거쳐 다른 문장 속에서 용언을 꾸미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한다. 그러나 이 부사화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없이, -달리, -같이> 등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그 절만을 부사절로 인정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8) a.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 b. 그는 용모가 단정한 것과는 달리 품행은 바르지 않다.
- c.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는 또 시험에 실패했다.

7) 임흥빈 외, 앞의 책 p.197

2.4. 文, 문단의 연결 구조

문장은 문단을 구조 단위로, 문단은 文을 구조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분석에서 文과 文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문장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文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법에서의 構文論(文章論)의 연구는 상당히 활발히 진전되고 있으나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문단과 문단의 연결 구조, 문과 문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문장론의 연구⁸⁾는 미진한 상태에 있어 훗날의 과제로 미루고 근래 문장론 연구에서 발전된 유형을 바탕으로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그 기본적인 연결 관계를 살피려 한다.

2.4.1. 기본적인 연결 구조

문장론적 독해 지도⁹⁾에서 文 및 문단의 연결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A) 承接 - ① 順接 ② 選接 ③ 귀결 ④사태 또는 작용에서의 결과
⑤ 첨가 ⑥ 선택 ⑦ 대비 ⑧ 보류 ⑨ 한정 ⑩ 응답
- (B) 再叙 - ① 환언 ② 상술 ③ 요약 ④ 반복
- (C) 전환
- (D) 보충 - ① 해설 ② 예시 ③ 증명
- (E) 전제 - ① 제시 ② 예시

또한 순접, 역접, 累加, 再叙, 동격, 補足, 대비 및 전환으로 분류하는 유형이 보편성을 띠고 있어 위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연결 구조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A] 순접관계 : 앞에 있는 文이나 문단의 내용의 원인, 이유를 받아서

8) 時枝誠記, 「日本文法 口語篇」, pp.22~25. 국어 교육에서 구체적인 문장을 다루는 이상 문장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논하는 문장론이 앞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9) 倉澤榮吉, 渡部壽賀雄, 「文章論的 讀解指導」, pp.10~11에서 市川孝 씨의 문 및 단락의 연결관계를 유형화한 것임.

뒷 문이나 문단에서 결과, 귀결을 나타내는 관계

- ① 독립과 자주의 숭고하고 건전한 이념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생리가 되어야 한다. □, 민족 문화, 민족 생활의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 ② 고독하고 내성적인 간디는 친구를 사귄 줄 몰랐고, 여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할 만큼 나약했습니다. □, 학교 공부가 끝나는 대로 벼들을 피하여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 ③ 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네. □, 그날그날을 아무렇게나 살자는 것이었지.
- ④ 고전은 흔히 해묵은 얘기책이나, 옛 사람들이 끼쳐 놓은 모든 작품을 일컫는 말로 알기 쉽다. □, 현대문의 대가 되는 고문만으로 알고 있는 이도 있다.

①~④의 예문은 이유-귀결의 문맥으로 순접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순접의 접속 부사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은 요약이나 再叙로 볼 수 있으니 앞 뒤 문장으로 판별해야 된다. ④는 並接으로 볼 수 있으나 문장에서의 구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순접은 문맥의 중심이 귀결에 있다.

[B] 逆接關係 : 앞 문이나 문단에 대해 뒷 문이나 문단이 대립적이거나 반대, 모순, 異見이 제시되는 관계

- ① 소년 시절의 과도한 독서는 밀턴으로 하여금 만년에 실명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 그러한 근면의 덕택으로,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문학을 비롯하여, 철학, 천문학, 물리학 등의 학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었다.
- ② 소설을 그 분량으로 보아서 길고 짧은 것만 가지고 표준을 삼는다면, 단편 소설의 기본 형태는 14세기 이탈리아의 복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정말 근대 소설의 형태와 체제 아래, 고도의 예술적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편 소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③ 이제 나팔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기를 들라는 나팔이 아니요, 우리가 현재 전투 상태에 있기는 하나 전투를 하라는 나팔도 아닙니다.

①~③의 □는 뒷 글이 앞 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의 의미 내용을 갖고 접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역접관계의 접속부사가 와야 한다. ①문이 순접이라면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연결되어야 하겠다.

[C] 대등 병렬관계 : 문이나 단락의 내용이 並存, 발전, 동격으로 논리학에서 말하는 병립관계를 말한다.

① 논설위원실에서는 그날 그날의 평론을 담당하여 사실과 단평 들을 써낸다. □, 편집부에서는 신문 내용을 풍부하게 꾸미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낸다.

② 이같이 3·1운동이야말로 민족 정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긴 흐름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 민족 수련의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 타오르는 불길이 조금도 꺼지지 않아야 한다.

③ 고요한 밤에는 누구든지 달을 좋아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 □, 수놓은 듯한 조그만 별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신비롭게만 보인다.

④ 「만세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한국의 사회상을 그린 소설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 「취우」는 6·25사변을 전후한 우리 나라의 사회상을 그렸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①~④는 대등한 관계다. ①은 <논설위원실>과 <편집부> ③은 <달과 별> ④는 <만세전>과 <취우>의 경우가 병렬적이다. 그러므로 □에는 병력의 접속부사가 필요할 것이다.

[D] 첨가 보충관계 : 앞 문이나 문단의 내용을 강조 보충하거나 성질이 다른 것을 덧붙이는 접속 관계

① 남이 말하는 것을 채 새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옮겨 쓰다가 엉뚱한 기사가 되는 수가 많다. □, 정확하고 진실한 것은 뉴스의 생명이므로, 듣기조차도 잘못하여 엉뚱한 기사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

② 한글은 확실히 세계의 글자 발달사상 보기 드문 것이다. □, 세종대왕의 독창력으로써 완성된 한글은 그 놀라 만한 문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③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정씨의 주는 위낙 군소리요, 공자의 당초 소박한 표현이 그대로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다. □, 현세와 같은 名利와 虛華의 渦中을 뒀 수 있는 한 超脫하여, 하루에 단 몇 시 몇 분이라도 오로지 眞理와 求道에 고요히 沈潛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이 浮生 百年, 더구나 현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된 일인가!

④ 밀턴은 첫번 결혼에 실패했고, 둘째 번 부인은 사망했고, □ 그 자신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되었다.

- ①~③은 앞 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뒷 문을 보충시키고 있다.
- ④는 점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뒷 문은 앞 문을 첨가 보충하고 있다 하겠다.

[E] 전환관계 : 앞 文이나 단락에서 말한 사실을 변화시켜 뒷 문이나 단락에서 다른 사실을 나타내는 관계

① 연극은 문학, 음악, 미술, 조가, 건축 등 여러 부문의 단일 예술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 예술이다.

□, 연극의 본질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일까?

연극은 행동의 예술이다.

② 한편에서는 화폐를 판매자에게 주고, 판매자는 이 화폐를 목표로 재화를 줌으로써 서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 이것을 국민경제 전체의 처지에서 본다면, 한편 교환을 통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획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 생활의 총체로 국민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장구 소리가 가늘게 또 길게 끄는 것도 일종의 선의 예술일시 분명하다. □, 반달은 아직 총만하지 않은 데 여백이 있고, 장구 소리에는 여운이 있다.

④ 시가 내면세계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면 이미지와 이미지는 비약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고 외면의 모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 이미지란 말이 나왔지만, 특히 현대시에 있어서 이미지론을 크게 내세우게 된 것은 1914년 무렵부터 이미지스트라고 불린 영국의 현대시 운동에서부터였다.

- ①은 연극의 본질 ②는 국민경제 ③은 여백과 여운에 ④는 이미지 운동의 기원에 주안점을 두어 앞 문과 다른 사실을 전개하고 있다. 즉 앞

글과 뒷 글의 내용이 그 방향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는 전환에 해당된 접속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앞 문은 뒷 문을 이끌기 위해 제시의 관계라 보아 도입관계로 볼 수 있다.

[F] 再叙關係 : 뒷 문이나 문단의 내용이 앞 글을 환언, 요약, 상술, 반복할 때 나타나는 관계

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적 단계다. □,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람이라는 말에 형용사를 붙여, 큰 사람 또는 작은 사람 따위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우리가 고대 소설을 읽어 나갈 때 첫째로 느끼는 것은 문체가 노래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현대 소설이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된 산문 형식인데 비하여, 고대 소설은 산문이라기보다는 운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만큼 4·4조로 된 가사체가 대부분이다.

①과 ② 문의 뒷 문은 앞 문을 부연, 상술하는 관계이다. □에는 再叙의 접속부사가 와야한다.

[G] 선택관계 : 앞 문이나 뒷 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관계

[H] 비유 예시관계 : 앞 문이나 문단에 대한 실례, 비유를 나타내는 관계

[I] 제시관계 : 뒷 문이나 문단을 이끌기 위해 앞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문맥, 이 관계의 예는 전환에서 설명하였다.

위의 이론에 따라 문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은 지극히 약소한 모순적 존재다. ② 인간은 정욕의 종이요, 허위의 탈을 쓰고 야심과 권력의 손아귀에 지배되는 비참한 존재다. ③인간은 위대와 비참, 빛과 어둠, 천사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의 모순적 양극을 스스로의 본성 속에 지니는 존재다. ④그러므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그 위대한 면만을 지적하고, 비참한 면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요, 또 동물적이 차원만 강조하고 위대한 빛의 질서를 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인간은 자기를 동물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

고, 또 천사와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이 글은 인간의 양면적 특성을 주장한 글이다. 그러므로 ①문이 중심 문이다. ②문과 ③문은 ①문을 부연 상술하고 있으며 ②문과 ③문은 대등 병렬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④문에서는 파스칼의 말을 예시 관계로 인용하여 ①문의 명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그러므로〉의 용법이다. 이 접속부사는 대개 인과의 순접 문맥에 나타나는 것이나 여기서는 예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①문이 중심문일 수 있는 것은 ②문과 ③문이 ①문의 근거가 되어 부연 상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은 모순적 존재다.”라고 할 것이다. 두괄식 구성법이다.

2.4.2. 접속부사와 연결어의 연결 유형

앞에서 보듯 접속부사는 길을 찾아가는 뜻말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문장의 내용이 급변할 수 있어 접속부사의 중요성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문장론 문법에서 접속부사의 중요성에 대해

“접속사는 종래 극히 경시되어 왔지만 그것은 종래의 문법연구의 대상이 어(語) 또는 문(文)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 서술어, 수식어 등은 문의 구성요소로서 중시되고 이와 반대로 접속사 같은 것은 문의 구성요소 이외의 것이라 하여 경시되었다. 그러나 문장을 사상의 전개라 볼 때 문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문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때, 주의의 초점은 이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명사에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¹⁰⁾”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접속사의 문장 기능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여 좀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하고 싶다.

국어 문법서와 연관시켜 접속부사의 문장에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용법을 분류하겠다. 「國語文法論」에서 독립 연결어¹¹⁾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0) 時枝誠記, 앞의 책, p.170.

11) 김민수, 앞의 책, p.256.

- ① 병립문
 - ㉠ 중복적 : 그리고, 그런바, 또, 그러자, 따라서, 그러다가
 - ㉡ 선택적 : 혹은, 또는
 - ㉢ 대립적 : 그러나, 하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 ② 주종문
 - ㉠ 가정적 : 그러면, 하면, 그렇거든, 하거든, 그렇더라도
 - ㉡ 원인적 :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 그래서, 그러므로
 - ㉢ 전제적 : 그래야, 해야, 그렇건만, 그런즉, 그럴망정

이 또한 문과 문,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 분석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접속부사와 연결어를 앞에서 분류한 연결구조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순접 :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니,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매,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 ② 역접 :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러되, 하지마는, 하나
- ③ 대등병렬 : 및, 또는, 혹은, 또한, 이에 반하여, 또, 뿐만 아니라
- ④ 첨가 보충 : 단, 더욱, 그위에, 게다가, 뿐만 아니라, 더구나, 심지어, 더군다나, 여기서, 오히려
- ⑤ 전환 :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 여기서
- ⑥ 再叙 : 즉, 그런즉, 말하자면, 요컨대, 이를테면, 곧, 다시 말하면, 물론
- ⑦ 선택 : 또는, 혹은
- ⑧ 비유 예시 : 예컨대, 이를테면, 말하자면, 가령
- ⑨ 요약 :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하자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요컨대, 다시 말하면, 요는, 결국, 곧¹²⁾

12) 교과서에 주로 쓰인 접속부사와 연결어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2종으로 다음과 같다.

- | | | | |
|----------|--------------|--------|---------|
| ① 그러므로 | ② 그런데 | ③ 그러면 | ④ 즉 |
| ⑤ 그리고 | ⑥ 이리하여, 그리하여 | ⑦ 그렇지만 | ⑧ 그러니까 |
| ⑨ 그러기에 | ⑩ 말하자면 | ⑪ 요컨대 | ⑫ 이와 같이 |
| ⑬ 다시 말하면 | ⑭ 그러니 | ⑮ 이를테면 | ⑯ 그럼 |
| ⑰ 더구나 | ⑱ 그래서 | ⑲ 왜냐하면 | ⑳ 따라서 |
| ㉑ 그러자 | ㉒ 또 | |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에서 분류한 접속부사를 기계적으로 순접, 역접 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접속부사가 문 상호간, 문단 상호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문맥 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물론 위에서 분류한 기능이 1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접속부사는 2차적, 3차적 직능을 가질 수도 있다.

3. 결 론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문형이란 최소한의 필수 성분을 갖춘 단문으로 볼 때, 문을 이루는 필수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보고, 이 네 성분에 의해 이루어진 문의 형식인 3형식을 문의 기본 문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의 분석에 좋은 이론이 된 것이다. 그리고 수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필수적 성분은 용언의 어휘적 특징에 의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실제 문단에서 주류를 이루는 主從文, 混成文, 並立文 등은 기본 문형의 연결에 의한 문장의 확대이다. 이들이 분석에는 主從文과 並立文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연결어, 양태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의미 기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文의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주어와 서술어의 인지,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많은 삽입절이 있을 때 올바른 주술 관계의 인지,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올바른 대응 인지 등이 될 것이다.

4) 문장을 思想의 전개로 볼 때 문과 문단의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접속부사), 연결어, 양태어 등의 용법과 문장 기능은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더욱 숙지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은 연구가 문장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민수 : 국어문법론, 일조각, 1971
이익섭, 남기심 : 국어문법론(I), 방통대출판부, 1993
이익섭, 임홍빈 :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임홍빈 외 : 바른 국어 생활과 문법, 방통대출판부, 2001
최현배 : 우리말본, 정음사, 1982
이삼형 :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4
이은희 : 접속 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3
飛口多喜雄 : 機能的 讀解指導, 明治圖書株式會社, 1964
倉澤榮吉, 渡部壽賀雄 : 文章論的 讀解指導, 日本明治圖書, 1964
Brooks, C. & Warren R. P. : Modern Rhetoric,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49
Katheen, E. S. : Paragraph Practice, The Macmillan Company, 1971